

소수노조에게 노조법 개악은 사형선고!



지금도 복수노조 사업장은 노동권 사각지대!

지부 조합원 동지 여러분, 엔택지회 지회장 이종열입니다. 엔택지회는 충북 영동에서 렌지 후드를 생산하는 전체 직원 90명 정도 되는 소규모 사업장입니다. 2005년, 열악한 저임금과 비인간적인 대우를 견디지 못하고 노동조합을 설립했습니다. 직장폐쇄와 본사 점거 투쟁을 겪으면서 어렵게 민주노조를 만들었습니다. 직장폐쇄를 뚫고, 본사 점거투쟁까지 하면서 노동조합을 만드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금속노조라는 산별노조가 있어서 지역 연대의 힘으로 민주노조를 지켜냈습니다.

그러나 2011년 복수노조법이 개악되자마자 사측은 복수노조를 악용하여 민주노조를 말살하려 달려들었습니다. 회사에 또다른 노조가 생겼고, 충북지역에서 복수노조 1호 사업장이 됐습니다. 우리 지회는 조합원 24명의 소수노조가 됐습니다. 복수노조법 때문에 모든 권한이 교섭대표노조에게만 보장되고 소수노조는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자본이 아무 권한도 없는 소수노조를 탄압하고 짓밟기 아주 좋습니다. 엔택지회는 아직도 2011년 임단협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8년째 394차 교섭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노조법이 개악되는 것이 남의 일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바로 직격탄이 됩니다. 복수노조 사업장은 노동3권도 보장받지 못하는 법의 사각지대나 다름없습니다.



엔택지회장 이종열



노조법 개악은 민주노조 죽으라는 소리!

이미 복수노조법만으로도 소수노조는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한술 더 떠서 파업권도 무력화 하고, 산별노조 활동도 통제하는 노조법 개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조는 찌소리하지 말고 죽으라는 말입니다.

복수노조 사업장들은 조직 확대를 통해서 다수노조가 되기 위한 투쟁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수노조가 되더라도 노조법이 개악되면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파업해도 대체근로가 허용되고,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는 처벌하지 않고, 산별노조 간부들은 사업장에 출입도 못하는 상황이 되면 다수노조가 된다고 해도 노조가 될 할 수 있겠습니까?

복수노조가 앞장섭니다! 함께 투쟁합시다!

복수노조 사업장들은 노조법 개악 때문에 먼저 고통받았습니다. 그 어려움을 잘 알기 때문에 이번 노조법 개악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복수노조 사업장이 앞장서겠습니다! 노동조합의 미래를 암담하게 만드는 노조법 개악을 반드시 막아냅시다! 함께 싸우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엔텍지회 지회장 **이종열**

총파업! 총력투쟁! 노조법 개악 끝장냅시다!